



보건복지부



수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경유)

제목 의료광고 심의제도 관련 질의회신

1. 대한의사협회 대의광심 제1431-00024(2019.6.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의료광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의료광고 심의제도 시행(' 18.9.28.) 이전 진행한 의료광고의 의료광고 심의대상 판단 기준
- 의료광고 심의제도 위헌판결(' 15.12월) 이전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광고의 심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

나. 답변내용

- ' 18.3.27. 개정 공포된 의료법(' 18.9.28. 시행)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어, 의료법 제57제1항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 매체를 통하여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개정법 시행일(' 18.9.28.) 이전 시행한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를 준수하는 등 현행 의료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 18.9.28. 시행) 이후 시행하는 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 개정법 시행일 이전 게재한 광고는 해당되지 않으나, 의료광고의 특성상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의료광고의 경우, 현재 또는 미래시점에서도 불특정 다수가 해당 광고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의료법령을 준수하여 광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광고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일 이후 기존 광고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광고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광고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는 의료광고 심의제도 위헌판결 이전 의료광고 심의이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의료광고 심의제도가 시행된 2018.9.28.부터 기존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주무관

김세은

행정사무관

신제은

보건의료정책 전결 2019. 7. 2.

과장

정경실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269 (2019.07.02)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10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09 팩스번호 044-202-3903 / eunkim@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